성모공동체가
권하는 책

글.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
안과 조원경 교수

삶과 인간의 본질

그리고 세상을 이야기하다

조원경 교수가 추천하는 〈Me Before You〉

> 소설 속 주인공에게 감정이 이입되며, 환자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다.

지난 봄, 친구로부터 메마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이라며, 이 책을 소개받았다. 총알 배송이 된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하루 만에 배송 받은 책을 마주하고는 조금은 망설여졌다. 책의 두께가 만만치 않아서였다. 하지만 한 번 책을 읽기 시작하니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.

이 책은 조조 모예스(Jojo Moyes) 작가의 소설이다. 남자 주인공은 윌 트레이너. 한마디로 영국 명문가의 잘생기고, 돈 많고,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익스트림 스포츠와 여행을 사랑하는, 삶을 즐길 줄 아는 젊은 청년이다. 하지만 딱 한 순간의 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 목 아래의 몸 전체를 가눌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가 된다. 여자 주인공은 루이자 클라크. 돈이 필요해 간병 일을 시작한 이 시골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아가씨다.

상상해 보자.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의식은 분명하나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까딱할 수 없고, 물 한 모금조차 누군가 먹여 주어야 하고, 화장실을 갈때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…. 아니, 심지어 잠이 들 때 내가 눕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, 이불도 덮을 수가 없다면 말이다. 갑자기 사고로 옴짝달싹 못 하게 된 윌은 괴팍하다. 윌의 한 가지 목표는 죽는 것이다. 죽음을 목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윌을 간병해야 하는 루이자.

이 소설을 단순 로맨스 소설로 읽을 수도 있지만, 주인공의 입장에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은 복잡해졌고, 환자를 매일 대하는 직업을 가진 내게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숙제로 남겨 주었다. 이 책은 인간의 존엄사(안락사)에 대해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. 존엄사는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. 이제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다. 독자 여러분도 'Me Before You'로 마음을 꽉 채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권한다.